

종립학교를 가다

(6) 능인중·고등학교

논어(論語)에 보면 '육십이이순(六十而耳順)'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이 육십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해한다는 뜻이다. 6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능인중·고등학교는 이순의 의미처럼 교육에 대한 순리를 아는 학교다. 즉,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과의 경우 선생님들이 특기적성연구회를 만들어 고전, 현대문학, 특기적성 교육 및 수행평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홈페이지(www.openschool.cjb.net)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대입 전국수석 두차례... '적성교육' 중시

이같은 노력으로 99년도 교육부 주최 교과 교육 연구 최우수 연구회 선정되기도 했다. 또 영어과도 홈페이지(engclass.wo.to)를 개설,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 필요한 중요 어휘 및 회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교생활을 반성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능인만의 교육 노하우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급신문 발행을 통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학급신문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

에만 매년 평균 22명이 진화하고 있고 그동안 대학입시에서 두 차례나 전국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불타 정신 구현'을 바탕으로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 시민을 육성하고 알찬 문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밝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인간상의 확립'을 지향한다는 건학이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능인은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다.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개별적으로 법당을 참배, 정법으로 더 좋은 교



◇1939년 설립된 능인중·고등학교는 이사회와 동창회 학교당국의 화합 아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한 교육을 실시, 전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교과생활 길잡이도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의 강남에 비유되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능인중·고등학교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1939년 영천 은해사·대구 동화사·김천 직지사 의성 고은사·경주 불두사가 사재 출연해 설립, 현재 이사장 정후섭님의 지원 아래 중학교 1237명, 고등학교 1474명의 청보리들이 오늘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62년 역사·전통 자랑 교과연구 최우수학교

수업전에 법당참배 학부모가 시험감독

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인간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편중되어 있는 교과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특기 적성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중학교는 독서신문을 제작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우수 학생들을 위해 정진실을 운영, 스트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들의 결과는 고등학교의 진화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

육을 하겠다고 서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또한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실시, 올바른 가치관 및 정서 함양에 매진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 1교시에 진행되는 법회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길러 주고 있다.

능인은 학생·교사·학부모간의 신뢰가 강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중학교에서는 시험 감독을 학부모가 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와 학교의 유대관계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

"남 먼저 생각하는 사람 길러"

능인고 손기완 교장



능인중 조정래 교장



매일 아침 6시반 어김없이 학교에 출근, 법당에서 삼배를 하며 하루를 계획하고 정진관 학생들과 씨름부 학생들을 보살피는 손기완(사 진위) 능인고등학교 교장은 건학이념을 통한 교육이 바로 능인을 전국 최고의 명문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인사 잘하기 등 기분을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친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분을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능인고 교감 시절 대구 교사 불자회, 파라미타 창립을 주도했던 손 교장은 청소년 포교가 중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능인중학교 조정래(사진 아래) 교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교육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나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실시하며,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진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법사실에서 아용 스님·이종서 법사

"부처님 대하듯 신행 상담"

능인 고등학교 학생들은 합장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10년동안 교법사로 재직중인 아용 스님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법당인 반야전에 머무르면서 매일 아침 새벽예불을 올리며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아용스님.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신행활동을 주관하며 교직원들의 신앙심 고취에 열심이다.

79년 부임한 중학교 이종서 교법사는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삼촌과 같은 존재다. 또한 파라미타, 불교학생회 지도는 물론 대구지역 불교행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석하며 청소년 포교에 앞장 서고 있다.

동아리 탐방

씨름부

능인중·고등학교 씨름부(감독 허만석)는 지난 6월 2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서울시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91년 창단된 능인 씨름부는 짧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과 99년 대통령배와 시도대항전 등 5경기에서 종합성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훈련 명상 도입 각종 대회 석권

다른 학교 씨름부에 비해 선후배간의 정이 돈독한 씨름부원들은 하루 6시간의 강훈련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동화사에서 숙식을 하며 산악훈련과 함께 명상을 통한 집중력 강화 훈련을 가져 주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6만명 각계 눈부신 활동

총동창회

능인중·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보면 역시 능인이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6만 여명의 졸업생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능인인의 기개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영 상주지방법원 지원장, 배광식 대구시청 산업경제국장, 박정주 2군 참모장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능인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총동창회는 재경, 재부산 등 지역별 동창회와 청년, 장년 등 나이별 동창회 그리고 법조, 공무원, 군, 언론, 건설 등 직업별 동창회 등 소모임이 활성화 되어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체육대회 등 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동창회는 올해를 동창회관 건립의 원년으로 삼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철근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건립과 함께 동창회보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선후배와 동기간의 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모교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웃음을 내짚는다.



교장선생님과 동창회, 학부모의 후원 아래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는 씨름부는 오늘도 능인의 또다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⑧

스트레칭

1.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손은 위로 올리고,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한다.
2.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부터 들어올린다. 단전부위가 위로 올라가면서, 단전에 모였



누워 배들어 올려 처진 자궁 바로잡기



3. 다시 처음 상태로 천천히 엉덩이를 내린다. 이때 스트레칭의 중심을 천천히 목에서부터 척추, 단전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를 내린다. 뱃가죽이 팽기다가 편안해진다.
4. 다시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뽀' 하고 소리를 내면서 엉덩이를 서서히 올린다. 목

에서부터 척추를 지나 바닥에 지긋이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내린다. 5. 다시 '포' 소리를 내면서 한번 더 반복한다. 엉덩이를 내릴 때 마치 목뼈를 다림질 하듯이 차근차근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내리는 것이 동작의 핵심이다. 이 스트레칭은 서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또 한 여성의 경우 처진 자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지역불교 문화기행

더위 식힐 동해 3寺 순례

7월: 건봉사·낙산사·동명낙가사·정동진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김복에서 시원한 해인계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는 삼사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웅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동명낙가사에서는 인간문화재 유근형씨가 5년에 걸쳐 만든 오백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한 정동진역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 도량 낙산사에서는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사진)과 의상대사가 관음을 친견한 기도처인 흥련암을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염불만일회의 발상지이자 부처님 진신처인 사리가 봉안돼 있는 금강산 건봉사도 찾아갑시다.

- ◇출 발: 7월21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조식·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주)한화여행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